

 기획재정부		<b>보도자료</b>	
<b>보도일시</b>	<b>2021. 12. 7.(화) 10:00</b>	<b>배포일시</b>	2021. 12. 7.(화) 09:00
<b>담당과장</b>	예산실 예산총괄과장 박창환 (044-215-7110)	<b>담당자</b>	박상우 서기관 (tobby1@korea.kr) 김재영 주무관 (mondefond@korea.kr)

##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

### -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3.0% 배정 -

□ 정부는 「2022년도 예산배정계획」\*을 12.7일(화)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

\*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(계약 등)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

□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**73.0%**를 **상반기에 배정**하였음

- 특히, 코로나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, 산업·중소기업(소상공인 등), R&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두었음
-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

#### < 최근 예산배정 추이 (조원, %) >

	'17	'18	'19	'20	'21	'22
■ 예산총계(일반+특별)	339.7	368.6	399.8	427.1	459.9	497.7
■ 상반기 예산배정	230.9	250.8	281.4	305.0	333.1	363.5
■ 상반기 예산배정률	68.0	68.0	70.4	71.4	72.4	73.0

## 참 고

## 단계별 예산 배정 및 집행 절차

- ☐ (예산배정)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
- ☐ (자금배정)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
  -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국채 발행, 일시차입(재정증권·한은차입)으로 조달
- ☐ (예산집행)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